

卄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夜話 7

(1938年 發行分)

이 창 성/크리스마스 썰 동호인, 수집가

1. 크리스마스 썰의 도안 및 도안가

이름을 알수 없는 팔각정을 배경으로 하여 제기차기하는 소년을 바라보는 두 소년을 그린 것으로 지난 해의 김기창 화백의 도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아 앵콜 도안이 되었으나 배경의 팔각정의 무명인 까닭에 어떠한 특정의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서울 아니면 큰도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해의 도안도 기성화가로서 유명하게 되었으나 장애자의 악조건을 이겨낸 사람의 도안을 2년이나 거듭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화백의 이름이 너무나 높은 까닭이다. 제기차기는 한 사람이 한발차기와 양발차기, 발을 땅에 닿지 않고 연속으로 차서 횡수를 다루는 것등 세종류와 두 사람이 서로 차고 받는 것이 있는데 기네스 북에 기록된 제기차기의 세계기록은 9,600회라고 한다.

2. 운보 金基昶 畫伯의 약력

지난 회에서 김화백의 편모를 보았으니 이번에는 운보의 약력을 더듬어 보는 것도 뜻이 있을듯 하다.

(1) 1930. 이당 김은호(以堂 金殷鎬) 화백에게 동양화 수학을 15세에 시작.

(2) 1937-1940. 조선미술전에서 특선을 연4회에 걸쳐 수상.

(3) 1947-1971. 부부전을 17회나 개최.

(4) 1963. 제7회 사용파울로 비에날레 국제전에 처음으로 출품.

(5) 1965. 뉴욕 국제미술전 초청으로 특별 출품.

(6) 1967. a 프랑스 미술청협회 주최 류네벌시, 니스시, 렌느시 박물관 및 칸시 미술관의 초청을 받은 한국미술전에 특별 출품.

b. 제9회 사용파울로 비에날레 국제전 한국대표단 일원으로 참가.

(7) 1968. 로스엔젤레스 미술애호가협회의 종신회원이 됨.

(8) 1970. 미국 뉴욕 칼튜달 센터(前 탕턴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 개최.

(9) 1970-1971. 한국일보사 주최 한국 미술대상전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에 피선.

(10) 1971. 제12회 3.1문화상(예술상) 수상.

(11) 1972. 프랑스 제4회 칸느회화제에

출품.

(12) 1972-1973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화랑에서 초청한 한국현대화가 7인전에 출품.

(13) 1973. 제15회 3.1문화상 심사위원에 피선.

(14) 1974. 제23회 국전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피선.

(15) 1976. 국전운영위원에 피선.

(16) 1978. 한국미술 유럽순회전 출품.

(17) 1980. 화도 50년 기념 회고전을 서울, 부산에서 개최.

3. 썰첩의 두가지 종류 발행

1938년의 썰첩에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당시의 미화 1\$이 2원(圓)으로 1원(50센트)이면 50매의 썰첩을 살 수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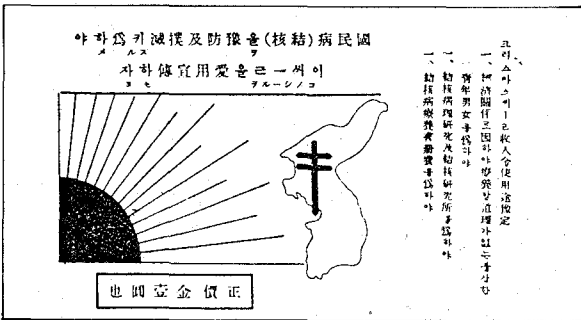
지만 1매당 2전의 썰을 50매나 산다는 것은 그 당시의 경제사정으로 매우 힘든 노릇이었다.

따라서 판촉면에서 매상고를 올리기 위하여 25매의 썰첩을 발행했던 홀 박사의 노력이 눈 앞에 보이는 듯 하다.

50매(5×2 Pane=5매)의 썰첩은 이미 기술한 것이니 말할 필요가 없으나 25매 썰첩의 표시는 50매 썰첩과 같으나 도안과 문구를 좁히고 있으며, 판매가가 50전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른 점이다.

그런데 25매(4×2 Pane)의 썰첩은 4×2 Pane=3매와 마지막 Pane은 1매의 썰과 7매의 Tabs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또한 Tab은 어떠한 도안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에와서 마지막 Pane은 1매의 썰과 1매의 Tabs(복십자 마크와 한국지도)인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다음회에 자세히 상술하겠지만 25매 썰의 마지막 Pane제작용의 (주) Tete Beche 썰이 1938년과 같이 전지 또는 Block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나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아쉽기 한이 없다.

썰첩은 두가지 모두 전년도와 같이 좌측에 폴칠



4×2 썰첩 마지막의 판(pane)

을 하고 재봉을 하였는데, 25매의 완전한 실패는 매우 희귀하며, 특히 마지막 Pane는 그 존재가 몇 장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 도안이 서로가 반대로 인쇄된 상태를 말하는 우표용어로서 어원(語原)은 프랑스이다.

4. 싼의 여러가지

- (1) 전지 : $5 \times 5 = 25$ 매
- (2) 무공전지 : $5 \times 5 = 25$ 매, 시쇄품으로 뒤풀 없음.

5. 복잡자엽서

싼 도안과 같은 도안으로서 대형도안과 소형도안 두종류가 있고, 뒷면에는 우편엽서라는 글이 영어와 일어로 인쇄되어 있다.

이 엽서들은 낱장으로 1매씩 판매한 것이 아니고 4매를 한묶음으로 하여 10전에 판매한듯 하다.

대형도안은 상부에 영어로 크리스마스 와 새해의 인사가 영어로 인쇄되어 있

는데, 소형도안의 엽서는 영어의 인사가 제외된 대신 전년도와 같이 복잡자엽서 판매의 목적과 효능을 재미있는 문구로 기재되어 있다.

6. FOLDER

대지의 크기는 $100 \times 140mm$ 이고, $92 \times 135mm$ 의 인면에는 싼의 도안을 목판인쇄로서 아름답게 인쇄하였는데 정밀한 인쇄기술에는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카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인면에서 복잡자는 제외되었으나 전년도와 같이 도안가의 이름인 '김기창'과 낙관이 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인면 밖 왼쪽 아래에는 영어로 <한국에서 인쇄>라는 표시가 1937년의 FOLDER만이 일본에서 인쇄하고 그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쇄한 것인지는 좀 더 연구해야겠지만 1938년 FOLDER를 볼때 당시 우리나라의 목판인쇄 기술도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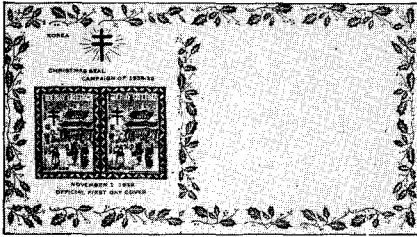


▼ 소형



7. 복잡자 봉투

1937년과 같이 동일한 크기와 내용으로 썰 도안만 바꾸어 인쇄되었다. 168



×93mm의 크기는 미국식 표준봉투인데 뒷면에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이 인쇄되어 있으며, 복잡자 사이에 “크리스마스 우편물에는 크리스마스 썰을”이라는 호소 문구가 적혀 있는가하면 아래에는 “우편물마다 단 한장의 썰을 많은 것을 도운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이 인쇄되어 있다.

이 판촉용봉투의 판매여부는 불명이며, 사용제의 입수가 매우 힘들다.

8. 각종 자료(DATA)

구 분	내 용	비 고
발 행 년 도	1938년	
도 안 내 용	제기차기	
도 안 자	金基稔	
인 면	26×37mm	
천 공	단식 11	
쇄 색	5도	
판 식	평판	
전 지 구 성	5×5=25매	시쇄품의 무공전지 있음
판 매 가 액	2전	
Booklet Pane구성	5×2 pane=10매	50매 썰첩(판매가 1원)
	4×2 pane=3매+1매의 pane	25매 썰첩(판매가 50전)
Booklet Pane규격	5×2 pane (134×74mm ±2mm)	
	4×2 pane (118×74mm ±2mm)	
인 쇄 소	보 진 재	

9. 참고문헌

- 1).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1978, Mcl Associates, McLean Virginia by Sherwood Hall
- 2). Green World Seal Catalogue, The christmas seal and Charity stamp society, by Henry Irwin
- 3). 닥터홀의 조선회상, 김동열 역 1984, 동아일보사
- 4). 雲甫 金基稔의 檜畫世界, 1982 Calendar 卍